

폐교 위기 흑산초 홍도 분교 다시 문 연 사연은?

신안군 '작은섬 학교살리기 프로젝트' 파격 혜택...전국 문의 쇄도 속속 주고 월 320만원 일자리 제공·연 80만원 아동수당도 전학생 6명 성과 "일자리 연계 늘려 더 많은 가구 유치할 것"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폐교 위기였던 신안군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홍도분교 작은섬 학교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음주 4일 열리는 홍도분교 개학식에 전학생이 오기 때문이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학생 3명만 남은 신안군 흑산초등학교 홍도 분교에 6명의 전학생이 등교한다. 신안군의 학교살리기 사업으로 경남, 목포에서 홍도로 이주해오는 3가구의 자녀들이다. 노을이 지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 보인다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면적 6.47km)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170호)로 보호되고 있다. 섬에는 어류가 많아 과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949년 문을 연 홍도분교는 아이들의 배움터

이자 놀이터였다. 1970년대에는 신안군에만 학교가 120개에 달했다. 하지만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학교 수는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홍도분교도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떨어져 폐교 위기를 맞이했다. 분교마저 사라지면 남은 학생들은 쾌속선을 타고 30분 거리인 목포에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지난해 '홍도분교 작은섬 학교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자녀를 가진 가구를 이전시키자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숙소제공은 물론 320만원 월급의 일자리 제공과 아동 1인당 연간 8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약속했다.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180여건의 전

화 문의가 빗발쳤다. 신안군은 2차례 서면 심사를 거쳐 총 12세대를 선발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틀간 현장 방문과 설명회를 진행해 4가구 10명이 들어오기로 결정됐지만 이중 한가구가 중도 포기해 최종 3가구 6명의 전학이 확정됐다. 신안군은 이주를 결정한 가구들을 위해 빈집을 개조했다. 또 학교 보조 업무를 맡는 복식학급 협력 강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주민은 홍도보 건지소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했다. 신안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에는 안정적인 거주지와 일자리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자랑했다. 홍도의 화목한 마을 분위기도 한 몫했다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실제 홍도 지역 주민들은 새로 이사온 주민들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27일 이주민 이사 당시 홍도 내 이삿짐 센터가 없다는 점을 걱정해 3륜차 등을 이용해 이삿짐 나르기를 적극 도왔다. 다만 애초 수용 가능한 가구가 3~4가구였다는 점에서 수요에 비해 더 많은 가구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안군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 전경. (신안군 제공)

신안군 관계자는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사업의 첫 프로젝트로 홍도분교 사업을 진행해 뜻깊다. 다만 새 입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집 리모델링에 대한 협회가 부족했고 일자리 연계가 어려워 더 많은 가구를 받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더 많은 가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폐교위기 학교(학생수 10명 미만)는 목포 1곳, 여수 3곳, 순천 1곳, 구례 1곳, 고흥 2곳, 보성 2곳, 해남 2곳, 무안 1곳, 진도 1곳, 신안 2곳, 고흥 3곳, 화순 2곳, 영암 1곳, 함평 1곳, 완도 3곳 등 26곳이다. /김다인 기자 kdi@



27년 이어온 헌혈 캠페인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 임직원들이 동절기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덴병원은 27년째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 생존자 천명 아래로...역사 전승작업 시급

1년새 360명 사망 904명 남아...정부·지자체, 역사관 건립 등 서둘러야
일제강제동원 국외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종사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기준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는 904명(광주 28명, 전남 82명)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시민모임은 "10대에 동원된 이들도 90대 중반에 이르면서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신다"며 "연 8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품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사업, 역사관 건립 등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전승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옛 도청 '기록·추모·위로' 공간 활용

전시실계 등 착수 보고회...5·18 '7일간의 투쟁' 등 형상화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에서 전시될 콘텐츠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전일빌딩 245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청 본관에는 복원·서사를 중심으로 '최후 항쟁지'로서 7일간의 투쟁과 기록을 전시한다. 1층 로비와 지방과 사무실에는 탄흔을 전시하고, 서무과에는 시민군 상황실을 마련한다. 2층 내무국장실·세마상상황실은 국내의 언론 보도와 윤상원 대변인 외신 브리핑 등을 전시하고 부지사실에서는 시민수습위원회의 계엄서와 협상 장면, 죽음의 행진 등을 재현한다. 3층 도지사실에는 유족 대표 면담 장면을 재

현, 상황실에는 최후항전 준비 장면을 전시할 방침이다. 도청찰국 본관은 5·18을 이끈 사람들과 남겨진 속제를 주제로 꾸며진다. 총 3층 공간 중 천장 높이가 1.6m에 불과한 3층을 제외하고 2개 층에서 전시가 열린다. 상무관은 추모 공간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 위로와 감사를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전시 기획을 잡고, 5월까지 공간별 세부 전시 콘텐츠를 확정해 6월까지 디자인·연출안을 확정해 기본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부터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대구 영진전문대 '달빛 강의실'로 학술교류

전남대와 대구 영진전문대가 '달빛강의실'을 열고 학술교류를하기로 했다. '달빛'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의 첫글자를 따온 명칭이다. 달빛강의실은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2학년 19명을 전남대 AI(인공지능)융합대학에 파견해 올해 1학기 동안 수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달빛강의실은 전남대 학생들에게도 개방한다. 전남대에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데이터통신, 컴퓨터와 네트워크보안, C프로그래밍실습 등 5개 과목 15학점이다. 교양 3학점 수업도 개설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AI분야에 참여하는 전남대(주관대학)와 영진전문대(참여대학)는 이전에도 교류해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